

제1부 빛의 예식 | 불 축복과 부활초 점화,
행렬, 부활 찬송

제2부 말씀 전례

제1독서 | 창세기 1,1-2,2(또는 1,1.26-31ㄱ)

화답송 | 시편 104(103),1-2ㄱ,5-6.10과
12.13-14ㄴ,24와 35ㄴ(◎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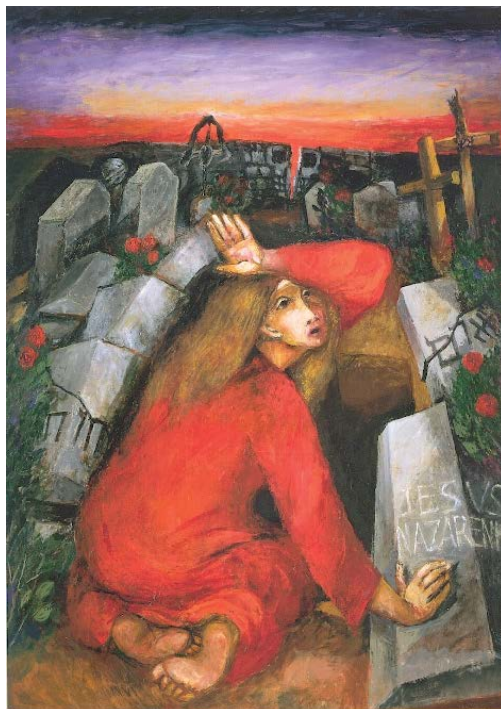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존엄과 영화를
입으시고, 광채를 겹옷처럼 두르셨나이다. ◎
○ 땅을 기초 위에 든든히 세우시니, 영영 세세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바다로 땅을 옷처럼
덮으시니, 산 위까지 물이 가득 찼나이다. ◎
○ 골짜기마다 샘물 터뜨리시니, 산과 산 굽이굽이
흘러내려, 하늘의 새들은 그 곁에 깃들이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나이다. ◎
○ 당신 거처에서 산에도 물 대시니,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나물 돋게
하시나이다. ◎
○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그 모든 것 당신 슬기로 이루시니,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제3독서 | 탈출기 14,15-15,1ㄱ

화답송 | 탈출 15,ㄷㄹㄱ-2.3-4.5-6.17-18
(◎ 1ㄷㄹ)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군셈.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은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조상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기리리라. ◎
○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파라오의 군대와 병거를 바다에 내던지시니,
뛰어난 장수들이 갈대 바다에 빠졌네. ◎
○ 바닷물이 그들을 덮치니, 돌처럼 깊이
가라앉았네. 주님, 당신 오른손이 권능과 영광을
드려내시니, 주님, 당신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수셨나이다. ◎



〈빈 무덤〉, 지저귀다

○ 당신은 그들을 데려오시어,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나이다. 주님, 그 산은 당신 거처로 삼으신
곳, 주님 손수 세우신 성소이옵니다. 주님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나이다. ◎

제5독서 | 이사야서 55,1-11

화답송 | 이사 12,2-3.4ㄴㄷㄹ.5-6(◎ 3)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군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려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제7독서 | 에제키엘 36,16-17ㄱ.18-28

화답송 | 시편 42(41),3.5ㄱㄴㄷㄹ; 43(42),3.4
(◎ 42 [41], 2)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뵈오리이까? ◎
○ 영광의 초막, 하느님의 집까지, 환호와
찬미 소리 드높은 가운데, 축제의 무리와
행진하였나이다. ◎
○ 당신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저를
인도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산,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게 하소서. ◎
○ 저는 하느님의 제단으로 나아가오리다.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오리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비파
타며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서간 | 로마서 6,3-11

화답송 | 시편 118(117),1-2.16-17.22-23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복음 | 마르코 16,1-7

제3부 세례 예식 | 세례수 축복,
세례 서약 갹신

제4부 성찬 전례

성가 안내

- 봉헌성가: [221] 받아주소서
[129] 알렐루야 노래하자
- 성체성가: [504] 우리와 함께 주여
[130] 예수 부활하셨네
[134] 거룩하다 부활이여
- 파견성가: [136] 예수 부활하셨도다



부활성야 미사는 교회의 오랜 관습에 따라 빛의 예식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부활의 거룩한 밤에 미사 전례는 죽음으로부터의 부활뿐 아니라 종말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다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빛의 예식 전례 중에 그리스도의 상징인 부활초를 축성하고 구약과 교회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장엄하게 찬미 찬송합니다. 제2부는 말씀의 전례로 하느님 구원의 말씀을 듣고 제3부는 성찬의 전례를 거행합니다.

7개의 구약성경(창세 1,1-2,2; 창세 22,1-18; 탈출 14,15-15,17; 이사 54,5-14; 이사 55,1-11; 바룩 3,9-15,32-4,4; 예제 36,16-17,18-28)의 독서는 하느님 세상 창조에서 이스라엘의 구세사를 전해주며, 신약성경의 로마서간 6,3-11과 마르코 복음 16,1-7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전합니다. 특히 오늘 복음에서 마르코는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목격한 주님의 빈 무덤을 통해 주님의 부활사건을 전합니다. 그는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구체적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여인들은 드러나지 않게 뒷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동틀 무렵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라도 발라 드리려고 서둘러 주님께서 묻히신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힘이 부치는 무덤 입구의 큰 돌을 어떻게 치울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달하니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고 하얗고 긴 옷을 걸친 웬 젊은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는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전합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마르 16,6) 그 젊은이는 이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보다 더 빨리 갈릴래아로 가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는 말을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일러줍니다.

부활 대축일의 요한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주님 무덤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설명합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요한 20,2)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에 놀라서 무덤으로 급히 달려가지요. 그들은 무덤에 들어가 주님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과 시신을 감았던 아마포가 무덤 한 켠에 잘 개켜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여인들의 말이 사실임을 믿게 되지만 주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미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을 대표하는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교우들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로마 6,4) 이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축제의 날을 맞아 기쁨의 잔을 나누며 부활의 희망을 다집시다.

부활을 **희망**하고
부활을 **믿는**
새로운 **삶**

Father Chung's Homily

“He has been *raised*!”

Following old tradition of the Catholic Church, the Holy Night of Easter mass begins with the Service of Light. At the Holy Night of Jesus' Resurrection, the Service demonstrates not only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th, but also the meaning of the Lord's life as our eternal light. The priest blesses the Paschal Candle and the history of Salvation from the Old Testament to today's Catholic Church is solemnly praised and exalted. The Service is followed by the Liturgy of the Word and the Liturgy of the Eucharist.

In today's Gospel, Mark testifies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th by telling us the story of the empty tomb of Jesus. Mark clearly mentions the names of the women who visited the tomb: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Salome. They came to the tomb very early when the sun had risen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so that they might go and anoint him. On entering the tomb they saw a young man sitting on the right side, clothed in a white robe, and they were utterly amazed. He said to them, “Do not be amazed! You seek Jesus of Nazareth, the crucified. He has been raised; he is not here. Behold the place where they laid him.” He told them to go and tell his disciples and Peter, “He is going before you 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as he told you.”

The Gospel of John tells us more details. After seeing the body of Jesus had been missing, the women ran to Peter and John and said, “They have taken the Lord from the tomb, and we don't know where they put him.” Peter and the other disciple came to the tomb and saw the burial cloths there, and the cloth that had covered his head, not with the burial cloths but rolled up in a separate place. However, they did not yet understand the scripture that he had to rise from the dead. Paul the Apostle said, “we were indeed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so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by the glory of the Father, we too might live in newness of life.” Our Lord, Jesus Christ, has risen from the dead indeed. Let us celebrate the joy of Easter with the hope of our Resurrection!

알링톤 교구 폴 로버디 주교 부활 메시지



“The Risen Lord Jesus
will transform our hearts.”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the Risen Lord Jesus,

As you are aware, I urged us in my Lenten message to implore the Lord Jesus to form our hearts, so that we would emerge at Lent's end as a people whose hearts beat in accord with His. Strengthened by prayer, purified by fasting and other forms of penance, and committed to almsgiving, our hearts are now more in sync with the Heart of Jesus Christ, on fire with love for Him and for all our brothers and sisters, especially for those most in need.

We have more intentionally been united to the Lord Jesus as we relived His suffering, death, and resurrection through our participation in the liturgies of the Easter Triduum. As we rejoice this Easter Day in Our Savior's triumph over sin and death, we are keenly aware that we too must continue to share

in His triumph, dying to our self-centeredness and living instead for the Lord and for others.

During Lent, we were re-created, so that in the weeks and months ahead, the power of Christ's love may be at work in us, enabling us to be “missionary disciples” as we invite those we encounter to come to Jesus, so as to experience His transforming love themselves. Just like the first disciples, we are sent forth by the Risen Lord Jesus to evangelize, primarily by our witness in daily life, but also in our conversations and dialogue. An aspect of our witness embraces our reaching out to the needy in practical ways, so as to make visible Jesus Christ's loving care for them.

The Risen Lord Jesus will transform our hearts in answer to our request that He do so. With hearts formed like His, we can truly live as His disciples, witnesses to the power of His risen life at work in us.

Keeping you in daily prayer through this Easter season and beyond, I remain.

Faithfully in the Heart of Christ

Most Reverend Paul J. Loverde

Bishop of Arlington

“삶 속에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저는 올해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이번 사순 시기가 끝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님의 마음과 완전히 일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은혜를 간구하자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순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은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단식과 속죄와 자선을 통해 정화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과 보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모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에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성삼일 전례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체험하였고 그 결과 주님과 보다 가까이 일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 죄와 죽음을 물리치신 우리 구원자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우리도 또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삶을 버리고 주님과 이웃들을 위해 삶으로써 주님의 승리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 사랑의 힘을 통해서, 사순 기간 동안 우리는 다른 이들을 주님 앞으로 초대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선교의 사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첫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 우리는 매일의 일상과 대화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임무 중 하나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다가감으로써 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면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성심과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삶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진정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 시기 동안, 또 그 이후로도 계속 저는 여러분 모두를 매일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심 안에서
알링톤 교구 폴 로버디 주교 올림



"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인의 의무"

성소자 모임 Quo Vadis



본당의 성소자 모임이 지난 달 22일 오후 1시부터 친교실 B-3,4에서 있었다. 모임 참석자들은 요셉 지도 교사의 강의를 통해 예비 성소자로서 자세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요셉 지도 교사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자선에는 애덕의 7가지 실천, 곧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일,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일, 집 없는 자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는 일, 병든 자를 방문하는 일, 감옥에 있는 자를 방문하는 일, 죽은 자를 묻는 일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 등이 있다”며 “이는 복음적 권고를 실천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것으로 이러한 자비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악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며 애덕을 실천하는 삶을 강조했다.



M.E. 월례회

M.E. 월례회가 지난 달 28일 오후 박원균 (암브로시오) 대표 부부 집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총 여섯 가정의 부부가 참석했으며 ‘나는 평소에 배우자에게 생명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나의 느낌은?’이라는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눴다.

베드로회 모임

본당 40대 신자들의 모임인 베드로회는 3월 모임을 대신해 본당의 춘계 대청소에 참여했다. 지난 달 29일 10가정의 17명 회원들은 본당 안팎 곳곳을 정성을 다해 청소했다. 4월 모임은 워싱턴 DC에 있는 대성당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church)으로 성지순례를 갈 계획이다.



부활성야 미사 후 신자들에게 나누어 줄 계란 준비 계획과 오는 5월 17일 열리는 장터 한마당의 구역별 음식과 게임 준비 등을 논의했다.



구역임원 교육

구역임원 교육이 지난 달 29일 오전 11시30분 39 명의 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달의 말씀 나누기에서 최 율리야나 수녀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데서 나오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명하면 마음의 평화와 참 기쁨이 온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울프레야

3월 정기 울프레야가 지난 달 27일 금요일 미사 후 본당 친교실 A-1,2에서 열렸다. 이번 울프레야에서는 워싱턴 여성 제15차 꾸르실료 교육(4월23일부터 4월26일까지)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참가자들이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묵상’ 시간에서 장미경 (에디파) 부간사가 “삶이 편안하면 기도생활이 무덤덤해지며, 노력 없는 곳에 은총도 없다”라는 내용으로 묵상을 이끌었다. 또한 ‘나눔’ 시간에는 기쁨 팀의 박재환 (바오로) 형제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기쁨이 온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인준 (파트리치오) 지도 신부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나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왕따의 삶을 살더라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영적지도를 했다.

* 아주 순한 진돗개 입양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이 베드로 (703)407-5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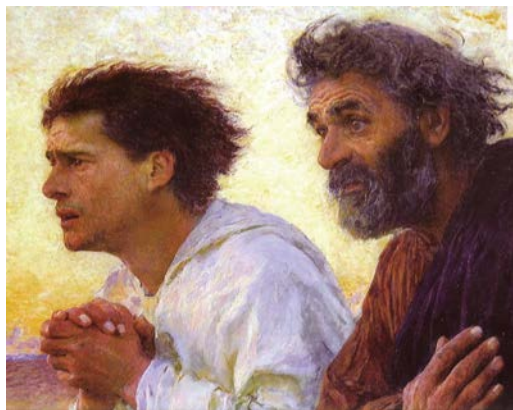


복음 속 장면

부활 아침 무덤으로 달려가는 제자들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외젠 뷔르낭(1850~1921)
유화, 1989, 오르세 미술관, 파리



앞장서 달려가는 요한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함께 달리고 있는 베드로의 부릅뜬 눈은 놀라움을 나타낸다.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께 대해 신앙을 고백하듯이 양손을 움켜잡은 채 달리고 있다.
베드로는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왼손으로는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손의 모양이 그의 신앙고백을 나타낸다.

앞장서 달려가는 요한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나 요한은 불안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 대해 신앙을 고백하듯이 양손을 움켜잡은 채 앞을 향해 달리고 있다. 요한의 곁에서 함께 달리고 있는 베드로의 부릅뜬 눈은 놀라움을 나타낸다. 베드로는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왼손으로는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손의 모양이 그의 신앙고백을 나타낸다. 즉 부활하신 주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가운데 한 분인 성자라는 것을(왼손) 마음속 깊이 고백하고 있다(오른손). 무덤에 다다를 즈음에는 약한 신앙을 상징하는 검은 솔도 벗겨질 것이다.

부활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으면 우리들도 그들과 갈릴래아 들판을 달려가고 있는 듯한 생각을 갖게 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먼동이 터오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스위스 출신 화가 외젠 뷔르낭(Eugene Burnand)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작품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적이며 생동감 넘치게 표현되어 있다. 40호쯤되는 이 작품은 성서에 나타난 주제를 충실하게 그렸는데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주간 첫날, 아직 이른 아침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서 보니, 무덤에서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알렸다.

“사람들이 무덤에서 주님을 빼돌렸습니다. 어디에다 옮겨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돌이 같이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먼저 달려 무덤으로 갔다”(요한 20,1-4).

뷔르낭은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체 화면을 황금색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생전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녔던 갈릴래아의 거친 들판과 작은 마을들을 원경으로 표현했다. 화가는 단조로운 화면에 왼쪽으로 달려가는 두명의 사도를 그려넣음으로써 보는 사람들에게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예수님의 빈무덤 소식을 듣고서

(정웅모 신부의 성화 해설)

본당 교우 시

부활 축일

강금생(안사)

너무 좋은 것들에 젖어 살다 보면
세상 모든 것을 귀한 줄 모르고
건성으로 보아 넘기듯이
때로는 당신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을 다 놓쳐 버리고 마는
안타까움

주신 은혜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절감합니다.

이 못난 자아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하신 은혜 감사하옵니다.

부활 축일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 태어날 기쁨

다시 깨달음을 주신 주님
오늘을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께 사랑과 용서를 고백하며
새로워진 날
언제나 눈부신
환희의... 부활
축제하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은” 김수환 추기경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팔이 울리고 환영 인파가 환호성을 울리는 가운데 화려하게 등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무덤가에서 당신을 찾는 이에게 조용히 몸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세상에 지치고 삶에 실망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슬플 때, 괴롭고 아쉬울 때, 자신의 한계와 무기력을 뼈저리게 느낄 때,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따로 불러 위안을 주시며 당신께로 모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인간의 눈에는 빈 무덤처럼 보이는 이 세상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현존하시면서 인간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류의 역사를 살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과 함께 5분”

공지사항

공지사항 신청: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1 본당 홈페이지 개편

- 예수 부활 대축일 (4월 5일)에 본당 홈페이지 (www.stpaulchung.org)를 개편하여 오픈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체 기도회

- 매월 둘째 토요일(4월 11일)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 오후 8시부터 시작하니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베드로회 성지순례

- 일시: 4월 12일(일) 낮 12시-미사참례, 오후 2:30-성당순례
- 장소: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400 Michigan Ave N.E. Washington DC. 20017)
- 문의: 김돈현 (571)334-5815

4 푸르실로 지도신부배 골프대회

- 일시: 4월 19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Red Gate Golf Course(MD)
- 문의: 서종원 (571)213-2942

5 2015년 교우 주소록 광고 접수

- 본당 교우 주소록 (6월중 배포 예정)에 광고 게재를 원하시는 교우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및 문의: 박기상(미카엘) 총무부장 (703)888-7988

6 분노 조절 세미나 (Anger Management)

- 본당 복지부와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가 공동으로 분노 조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일정: 4월 19일, 4월 26일, 5월 3일(3회)
- 참가비: \$10 • 장소: 하상관
- 강사: 정신 건강 프로젝트 담당 석지영 LGPAT

7 Rice Bowl 반납

사순절 시기에 정성껏 모은 라이스 보울(Rice Bowl)을 다음 주일(4월 12일)까지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등교시에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교황님 기도 지향

4월	일반 지향	피조물을 존중 사람들이 피조물을 존중할 줄 알고 이를 하느님의 선물로 돌보는 법을 배우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지향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으로 위안을 받고 모든 교회가 그들과 연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4월 5일(일)	예수 부활 대축일	예수부활 대축일 (8:00, 10:00, 성인-성당, 학생-친교실) 오전 11:40, 오후 5:00 미사 없음. 주일학교 수업 없음
6일(월)	부활팔일축제내 월요일	평일 아침 미사 (6:00, 성당)
7일(화)	성 요한 바티스타드라살	레지오 마리에 (20:00, 친교실), 성령기도회 (20:00, 친교실) 하상 성인학교 (9:30, 하상관, 친교실), 예비자교리 (20:00)
8일(수)	부활팔일축제내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9:30, 친교실), 성경학교 휴강
9일(목)	부활팔일축제내 목요일	평일 아침 미사 (6:00, 성당), 하상 성인학교 (19:30, 하상관)
10일(금)	부활팔일축제내 금요일	하상 성인학교 (9:20, 하상관, 친교실)
11일(토)	성 스타니슬라오 주교	아침 미사(7:00, 성당), 레지오(9:30, 친교실) 하상 한국학교(9:30-12:30, 하상관), 공동체 기도회 (20:00, 각 지정 장소) 워싱턴한국학교 협의회 시 낭송대회(13:00, 친교실)
12일(일)	부활 제 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단체장 회의 (11:30, B-3, 4), 꼬미시움(13:00, B-3, 4), 복사단모임(12:40, B-1, 2), 상조회 설명회(11:30, A-1, 2), 베드로회 성지순례 (12:00, 내셔널 슈라인)

Pilgrimage to Philadelphia with Pope Francis!

The Office of Youth Ministry for the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is sponsoring a pilgrimage to Philadelphia to participate in the World Meeting of Families and the Papal Mass. This pilgrimage is open to all 9th-12th graders during the 2015-2016 school year.

September 25-27, 2015



\$200 cost includes:

- deluxe motor coach transportation
- accommodations at youth retreat center
- some meals
- pilgrimage t-shirt and credentials
- access to Papal Mass and other activities



Contact

Scott Kang (571-393-4214)

if you are interested!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 Fios Ch. 30

4월 9일(목) 오후 9시~11시

- **오늘의 양식** - 성 정 바오로 성당 주일 강론
- **미션 2** - "부르심, 그리고 순명" -
에콰도르에서 선교하는 김용숙 등
한국인 선교사들
- **열린 특강** - 성인 자녀와 잘 지내는 비결/
이호선 교수 특강

4월 10일(금) 오후 10시~11시

- **예수 부활하셨네** - 성 정 바오로 성당
부활절 강론
- **생활속 성경찾기** - 정인준 신부님의
평화방송 특강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2015년 3월 29일 (주님 수난 성지주일)
 주일헌금 \$8,106.00
 교무금 \$10,715.00
 교무금(신용카드) \$5,720.00
 특별헌금 \$820.00
 2차헌금 \$0.00
합계 \$25,361.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 전례 및 청소 담당

4월 5일 전례부
 4월 12일 웨어팩스 3-1&2
 4월 19일 웨어팩스 3-3&4

기도해주세요

♥ 군 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박해준(제노베파),
 구본인(론지노), 윤벽참(프란치스코), 정수지(요안나),
 윤시훈(아우구스티),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이진우(사도요한), 임용수(자시와), 임현석(아비모),
 손범기(펠릭스), 장동호(다니엘), 장동건(스테파노),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전성호(세례자 요한),
 최용성(프란치스코), 장동길(피터), 강데이빗(요셉),
 정수지(요안나), 고미엘(미카엘라), 에스더 정(세레나)

♥ 병중에 계신분

권 모니카, 고상균(스테파노), 윤규희(발바라),
 박대용(베드로), 박병태(요셉), 김경화, 정종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최윤돈(제네시오),
 Donald Huckabee, 한중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박상연(라파엘), 최연경(프란치스코)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교우 비즈니스 광고

광고 신청 및 문의: 성당 사무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88-221-8533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18-5404	Brite Smile Dental Group 브라이트 스마일 치과 윤재원(베드로) DMD 703-447-5204
윤석준 변호사 상속, 세금, 자산관리, 상법 윤석준 (다니엘) 703-473-2868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Youngs Health Care Inc.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주택융자, 채용자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대박 월드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속옷), 신발 배 엘리사벳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Chantilly/South Riding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와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Acupuncture & NAET Center 한 의사 르네 김(테레사) www.AcupunctureandNAETCenter.com Allergy 전문, 각종 보험취급 571-306-8389	Coway/코웨이 정수기, 청정기, 비데, 연수기 원적외선 건조사우나(무릎, 반신) 아네스 황 (탐원 환영) 703-587-6540	Susan Interior 커튼, 블라인드 김수산나 703-981-4296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에스터) 571-215-3232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 703-801-3924
최영국 노래교실 노래교실, 스포츠 댄스, 파티룸 완비 최영국(아브라함) 571-435-5811	H&R BLOCK 세금보고, Arlington 강필이(아가다) 703-963-1329	클라라 도예공방 도자기 강습합니다 도자기 판매합니다 하영국(글라라) 703-678-8899	코리아 이삿짐 Since 2001 박요셉 703-222-0712	한의원 인내천 교통사고, 운동사고, 오래된통증 유제운(요셉) 703-642-3300
피터 신(공인회계사) 세금보고, Payroll FAFSA/CSS 703-489-7435	김정환 GOLF 레슨 USGTF Golf Pro PGA Pro(former), UVA 첫 30분 상담 Free 703-569-7840	매튜 글러버 변호사 상법 소송, 법인법, 상속 www.mcglaw.com 571-830-6464 (한국어) 703-288-5100 (영어)	호프스프링 아동가족상담소 아동, 청소년, 가족, 개인 상담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권미경(모니카), Ph.D. 703-957-8618	피아노 교실 성인반, 시니어반, 취미반 개인, 그룹 레슨 703-505-8559
WANI CONSTRUCTION, LLC Interior, Exterior, Remodeling, 와니 건축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용영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F teck connection, LLC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느미라지 미용실 헤어, 스킨케어, 메이크업 김크리스티나 703-658-4995 Cell: 703-889-0378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토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학교
08:00 AM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07:30 PM	07:30 PM	11:00 AM	07:30 PM	일요일 10:00 AM
10:00 AM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11:40 AM(English Mass)	05:00 PM					

성사안내

고해성사: 미사시작 30 분전
유아세례: 짝수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혼인성사: 6 개월전 신청 (교육필요)
병자성사: 위급하기 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기간 8개월)

주일 11시 40 분 (하상관)
화요일 오후 8 시 (친교실)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여름학기: 매년 6 월에 개강 / 연락처: (703)968-3070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봄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 연락처: (703)968-3070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사무실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정인준 (파트리치오)
보좌신부 김정하 (야누아리오)
본당수녀 최경옥 (올리아나) · 이수정 (젤뚜르다)
사도회자 김효중 (토마스)

2015년 4월 5일 (나해)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16세기, 유화
프란체스코 바사노, 상티모 레덴토레 성당, 베네치아, 이탈리아

[제 1독서] 사도행전 10,34-37ㄴ-43

[화답송] 시편 118(117), 1-2, 16-17, 22-23 (© 24)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 2독서] 콜로새서 3,1-4<또는 1코린 5,6ㄴ-8>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계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포] 요한 20,1-9

[성가 안내]

- 봉헌성가: [221] 받아주소서 [129] 알렐루야 노래하자
- 성체성가: [504] 우리와 함께 주여 [130] 예수 부활하셨네
[134] 거룩하다 부활이여
- 파견성가: [136] 예수 부활하셨도다